



■ 광주체전 화제

누가 누군지 헛갈리네 곳곳에 쌍둥이 선수들

쌍둥이, 형제, 자매, 부부, 부녀...

8일 막을 올린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같은 시·도 대표로 출전하는 가족선수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형제, 자매, 남매는 수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고, 흔히 않은 쌍둥이 선수도 눈에 띈다.

광주에는 이유성·혜성(광주제일고) 쌍둥이 형제가 있고, 수영 남자 일반 고영명(조선대 4)·영웅(한국체대 2), 사격 일반 트랩 선종현(감곡)·종국(선수) 형제선수가 출전한다.

전남의 김달은, 고은(이상 부여여고), 정주원·승원(이상 함평여고) 쌍둥이 자매는 각각 수영과 펜싱에 출전해 금메달과 은메달을 노리고 있다.

또 전남 레슬링에 이영연·주연, 체조 이광률·광민, 배드민턴 박계양·건남, 야구 신성호·진호, 럭비 허성웅·지웅 형제가 메달을 향해 뛰고 있다.

이외에 전남 정구 김유호(전남정구연맹)·해인(순천여고)양, 검도 최석우 임원과 카누 최민정(목포제일여고)양도 부녀간으로 출전하고, 수영에서는 이현철(전남수영연맹 부회장)씨·승연(한국체대 3)군 부자가 참가한다.

전남 사격의 남상호(해남군청)·유순자

(전남일남), 장대규(상무)·이경숙(장흥군청)씨는 부부 선수로 동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에는 성현능(강원체고)·고은(원주여고) 쌍둥이 남매가 있다. 성현능은 첫 날 남고부 역도 56kg급 용상과 합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성고은은 '쌍둥이의 기'를 받아 여고부 48kg급에서 동남 메달에 도전한다.

핸드볼의 최성진·성혁(강원 경원고) 형제는 같은 팀에서 불을 주고 받으면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체조의 이용보·용평(이상 한양대·강원대), 복싱의 강신조·신화(이상 경기체고) 형제, 육상의 김혜선, 해정(경복체고) 자매도 쌍둥이다.

쌍둥이는 아니지만 국가대표팀에서 뛰면서 동반 메달이 유력한 형제, 자매들도 눈길을 끈다. 지난 해 김천 전국체전에서 개막 후 처음 한국기록을 세웠던 인라인롤러의 임진선(안양시청)과 진주(동안고) 자매는 시니어 국가대표 팀에서 혼합밥을 먹고 있다.

하지만 임진선이 실업팀에 입단하면서 이번 체전에서는 일반부와 고등부로 따로 출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8일 전국체전 개막식 참관을 위해 광주를 찾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이 환영오찬 자리에서 박광태 시장과 건배를 하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IOC위원들 "한국체육 저력 실감"

광주시 환영오찬서 밝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이 제88회 전국체전 개막식 참관을 위해 광주를 방문, 박광태 시장이 마련한 환영오찬에 참석했다.

한국올림픽위원회와 광주시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한 이반 디보스(Ivan Dibos) 페루 IOC위원 등 5개국 위원들은 개막식 참석에 앞서 8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피렌체호텔에서 열린 환영오찬에 참석해 박 시장으로부터 전국체전 준비상황과 인·평화도시 '광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주는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표

하는 도시"라며 "전국체전도 민주·인권·평화의 축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반 디보스 위원은 "한국은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의 상징이 됐다"며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그때 보여준 한국인들의 노력은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IOC위원은 이반 디보스(페루), 멜리톤 산체스 리바스(파나마), 사미 무달랄(시리아), 티모니 춘 신 폭(홍콩), 리마 수보노(인도네시아)씨 등으로, 이슬람권 국가인 시리아와 인도네시아 위원 2명은 라마단(Ramadan) 기간과 겹쳐 오찬에는 참석했지만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이영표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평점 6

설기현 후반교체 투입...평점 5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홉스퍼의 이영표(30)가 현지 언론으로부터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7일 밤 열린 2007~2008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리버풀-토트넘전 출전 선수 평점을 매기면서 왼쪽 풀백 이영표에게 '효과적이었다'는 찬사와 함께 평점 6점을 줬다.

경기는 토트넘이 2-1로 앞서다가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해 2-2 무승부로

끝났지만 이영표는 실점의 빌미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이 같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에서는 두 골을 모두 넣은 로빈 킨이 양팀을 통틀어 9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이 내려졌고 이영표의 포지션 경쟁자가 레스 베일에게 7점, 오른쪽 풀백 파스칼 심봉다에게 6점이 각각 주어졌다.

한편 스카이스포츠는 포츠머스와의 경기에서 0-2로 뒤지던 후반 교체 투입돼 30여분을 소화한 설기현(28·풀럼)에게는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다'며 5점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최재호기자 lucky@kwangju.co.kr



토트넘 홉스퍼의 이영표(오른쪽)가 7일 밤 영국 리버풀 안필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원정경기에서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상대 공격수 안드리 보로닌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여성 염혜선 월드컵 배구대표

여자배구의 기대주 세터 염혜선(16·목포여성)이 11월 2~16일 일본에서 열린 2007년 월드컵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게 됐다.

대한배구협회는 8일 토종 거포 김연경(흥국생명)과 특급 센터 정대영(GS칼텍스)을 포함한 월드컵 대표 최종 엔트리 12명을 발표했다.

고교 2학년인 세터 염혜선의 발탁은 다소 파격적으로 보인다.

여고생 국가대표는 김화복 배구협회 사무국장인 부산 남상여고 1학년이던 1973년 최연소(16세)로 뽑혔고, 1985년 지경희와 2005년 이소라(전 GS칼텍스), 지난해 배우나(한일전산여고)가 대표로 뛰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봉주 시카고마라톤 7위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37·삼성전자)가 아쉽게도 도전한 시카고마라톤에서 2시간17분대의 저조한 기록으로 7위에 그쳤다.

이봉주는 7일 밤(이하 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시내 코스에서 펼쳐진 제30회 라살뱅크 시카고마라톤 남자부 풀코스(42.195km) 레이스에서 2시간17분29초에 결승선을 끊어 7위로 끝냈다. 1위는 2시간11분11초에 들어온 패트리 이부티(케냐)가 차지했다.

이부티는 앞서 가던 조우아드 가리바(모로코)를 결승선 앞에서 제쳤다. 2위 가리바도 2시간11분11초를 기록했다.

마라톤에서 같은 시간으로 파이널 기록이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2시간7분대 재진입을 목표로 했던 이봉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여기는 무등골

LED 손전등 개막 분위기 살려

○광은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해 광주시와 광주은행이 준비한 우비·LED손전등·수건 등이 든 '우천대비'용 소품 가방이 개막식을 빛내는 데 한몫을 했다. 경기장을 찾은 3만여 입장객들은 선수단이 입장하자 좌석 아래 준비된 가방에서 노란 수건을 꺼내 일제히 흔들며 장관을 연출했다. 이어 입장객들은 성화 봉송 주자들이 경기장 트랙에 들어서자 LED손전등을 흔들며 '빛의 체전'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제일동포 응원단 노란수건 응원

○각 시·도 응원단의 개막전에서는 제일분응원단의 모습이 단연 빛났다.

제일분응원단은 제일본선수단이 들어서자 준비한 피켓과 노란 수건을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 응원단은 일본 후쿠오카 미단 부인회 소속으로 40명

의 응원단을 조직, 자발적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제일본선수단이 단상 앞에 도달하자 '간바레'(힘내라 뜻의 일본말)를 연달아 외쳤다.

제일교포 2세대인 김미자(62)씨는 "제일본선수단이 1등을 했으면 좋겠다"며 "조국에서 경기를 펼칠 선수단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인코리아 무료 시식코너 인기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와 나주의 경기장 앞에 설치된 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오른쪽)의 무료 시식코너가 선수는 물론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오리·닭고기 생산업체인 나주 화인코리아는 광주(8~

14일) 염주삼내체육관과 나주(8~10일) 벌로드름 사이를 경기장 앞에 무료 시식코너를 마련했다.

이 시식코너에는 오리·닭고기 바비큐와 함께 삼계탕 등을 마련, 선수와 관람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 특히 해외동포들은 고국의 전통보양식품인 삼계탕을 좋아해 화인코리아 직원들이 부족한 음식을 마련하느라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다.

대한사이클연맹 전남회장을 맡고 있는 나원주 화인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나주에서 열렸던 전국 사이클대회에서도 무료 시식행사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에도 시식코너를 준비했다"면서 "특히 타 시·도 선수들의 경우 효도선물로 오리고기를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자정운동 대대적 홍보

○대한체육회가 제88회 광주 전국체육대회에서 대대적인 체육계 자정운동 홍보에 나섰다.

8일 개최식에서 주요 내빈과 참가 선수단 등 전원이 'Clean Sports KOREA!'라고 새겨진 흰색 팔찌를 차고 자정결의문 낭독식에 참가했다.

역도 스타 장미란과 복싱 지도자 이송배 등 7명이 체육계 각 부문 대표 자격으로 결의문을 직접 낭독했다. /전국체전 특별취재단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Promise' (작은 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Kwangju. The ad is organized into a grid of boxes, each containing a business name, address, phone number, and a brief description of their services. The businesses include restaurant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 services. The overall theme is promoting local commerce and community support.